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문형 변천*

-い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오현정**

〈요지〉

본고에서는 2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쓰인 이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문형 변천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활용형의 사용빈도는, 상권에서 'Aです, Aく(は)ありません'은 감소하는 반면, 'A(사전형), Aかったです'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권에서는 'Aくなかったです'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かった' 등의 부정형은 상하권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과정별로 도입 문형을 살펴본 결과, 2차 교과서에서는 한정적으로 일부 문형만을 도입하였고, 3차 교과서에서는 2차 교과서보다는 형용사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었다. 4·5차 교과서에서는 모든 교육과정 중 활용형이 가장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체계성·구조성이 강조되었지만, 6차 교과서 이후에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면서 활용형의 도입이 축소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Aです'와 'A(사전형)'에서 'A(사전형)'가 형식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에서 'Aくないです'가 사용되는 장면적, 상황적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Aくない'가 동의요구형 의문문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점 등에 관해 논하였다. 2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일본어 문형 교육의 조류는 크게 구조중심에서 의사소통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언어기능에 따른 상황별 장면별 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범적인 문법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분야 : 일본어교육

키 워 드 :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교육과정, 문형 변천, 이형용사 활용형

1. 들어가기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2차 교육과정이 끝나갈 무렵인 1973년 2월 14일 제2차 부분개정에 일본어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각 시기의 교육과정은 그 내용이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부가 결정하여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된다. 교육과정에는 그 시대의 교육이론 및 교육정책이 반영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 및 학습이론, 평가 등이 포함되며, 이는 교과서로 구현된다. 따라서 그 시대의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97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어느덧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514)

이 논문은 2013년도 일반공용연구지원사업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교수, 일본어교육

러나 그동안 일본어교육을 논함에 있어,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일본어교육의 역사적 흐름이나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변화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¹⁾ 우리나라 일본어학습자의 대부분은 중등교육기관 학습자로, 중·고등학교는 일본어교육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본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되었으며, 현재 교육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가르쳐져 왔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가에 관해 고찰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제시된 문형 중 이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용사는 명사, 동사와 더불어 활용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급 문형으로 도입되는 대표적인 품사 중 하나이다. (구)일본어능력시험 출제기준 4급 문법리스트에서는 이형용사의 활용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이형용사 관련 문형

분류	문법사항	표현형식	예문
1	polite.현재긍정	Aです	この本はおもしろいです。
2	현재부정	Aくないです	そのへやは広くないです。
3		Aありません	そのへやは広くありません。
4	polite.과거긍정	Aかったです	きのうはあたたかかったです。
5	과거부정	Aなかったです	きのうはさむくなかったです。
6		Aありませんでした	きのうはさむくありませんでした。
7	plain.현재긍정	A(사전형)	この本はおもしろい。
8	현재부정	Aくない	そのへやは広くない。
9	plain.과거긍정	Aかった	きのうはあたたかかった。
10	과거부정	Aなかった	きのうはさむくなかった。

(국제교류기금(2002))

4급 문형은 초급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도입되는 문형으로,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형용사 활용형은 모두 4급 문형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문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형용사 활용형의 사용 및 도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관해 살펴본다.

www.kci.go.kr

1) 최근 들어 조문희(2011), 윤유숙(2012), 김의영(2012)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의 변천을 통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바야시(小林, 2009)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일상회화 코퍼스에서 이형용사의 모어화자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이형용사가 활용형에 따라 사용빈도가 크게 다르며, ‘いい, ない, すごい’가 전체 사용의 6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위 10위에 들어갈 만큼 사용빈도가 높은 이형용사라도 모든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초급에 어떤 문법항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 및 교실활동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바야시(2009)는 실리버스 설계에서 어휘항목과 문법항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형용사 관련 문형 도입의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시오카(吉岡, 2012)는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일본어교재를 분석하여 그 변천과 동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를 제외하고 교재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학습내용별 교재에는 종합교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80년대까지 문형쌓기식 교재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이후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Can-do’ 개념을 도입한 교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어휘·문형 습득을 대신하여 ‘일본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커리큘럼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일본어교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요시오카(2012)는 일본어교재의 변천과 그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교과서분석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주은경(2005)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4급 형용사·형용동사 문형을 분석하여 형용사 비과거 긍정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형은 ‘Aくありません’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부정 표현의 사용이 매우 미비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형태는 고른 사용빈도를 보였다고 한다. 교과서 간의 비교 고찰을 통해 교과서마다 제시하고 있는 문형이 크게 다르고 전체적으로 학습량이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²⁾

이상의 선행연구는 본고의 연구내용과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연구로,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이형용사 문형에 관해 고찰한다.

4.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제시된 이형용사 활용형

4.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로,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발행된 교과서 총 78권이다.

2)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형 변천을 고찰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일정 시기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형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희현(2011), 김현수(2011), 윤소영(2004), 김이진(2003), 황희숙(1990) 등이 있다.

〈표2〉 교육과정별 일반계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교육과정 (기간)	학교급별	분야	서명	발행연도	종수	비고
제 2차 (1963~1974)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上)	1973	1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下)	1974	1	
제 3차 (1974~1981)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上	1979	1	국정
			고등학교 日本語 下	1979	1	
제 4차 (1981~1988)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上	1984	5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 下	1985	5	
제 5차 (1988~1992)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上	1990	8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 下	1991	8	
제 6차 (1992~1997)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I	1996	12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 II	1997	12	
제 7차 (1997~2007)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I	2002	10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 II	2003	6	
2007년 개정 (2007-2014)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日本語 I	2012	6	검정
			고등학교 日本語 II	2012	2	

〈표2〉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는 제2차, 제3차 교육과정에서 상하 각각 1권씩이 발행되었고, 제4차에서는 상하 5권씩, 제5차에서는 상하 8권씩, 제6차에서는 상하 12권씩이 발행 되었다. 제7차에서는 본래 상권 12권이 검정에 통과하였으나 실제 발행된 것은 10권으로, 하권 6권과 함께 총 16권이 발행되었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상권 6권과 하권 2권이 발행되었다.

4.2 조사 결과

4.2.1 い형용사 활용형의 사용

〈표1〉에 제시한 형용사 문형을 중심으로 상권에 쓰인 い형용사 활용형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3〉 교육과정별 형용사 활용형(상권)

단위=회, ()=%

분류	표현형식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계
1	Aです	49 (75.4)	65 (54.6)	355 (42.0)	464 (44.7)	643 (34.1)	357 (31.9)	126 (23.2)	2059 (36.6)
2	Aくないです	0	3 (2.5)	65 (7.7)	38 (3.7)	91 (4.8)	19 (1.7)	9 (1.7)	225 (4.0)
3	Aく(は)ありません	11 ³⁾ (16.9)	17 (14.3)	93 (11.0)	86 (8.3)	143 (7.6)	63 (5.6)	20 (3.7)	433 (7.7)
4	Aかったです	0	1 (0.8)	52 (6.1)	92 (8.9)	119 (6.3)	102 (9.1)	69 (12.7)	435 (7.7)

5	Aくなかったです	0	1 (0.8)	13 (1.5)	9 (0.8)	26 (3.4)	8 (0.7)	3 (0.6)	60 (1.0)
6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0	13 (1.5)	11 (1.1)	9 (0.4)	4 (0.3)	4 (0.7)	41 (0.7)
7	A(사전형)	5 (7.7)	22 (18.5)	229 (27.1)	312 (30.1)	724 (38.3)	469 (41.9)	264 (48.6)	2025 (36.1)
8	Aくない	0	6 (5.1)	9 (1.1)	6 (0.5)	32 (1.6)	16 (1.4)	16 (2.9)	85 (1.5)
9	Aかった	0	4 (3.4)	12 (1.4)	15 (1.4)	87 (4.6)	68 (6.2)	29 (5.3)	215 (3.9)
10	Aくなかった	0	0	5 (0.6)	5 (0.5)	14 (0.7)	12 (1.2)	3 (0.6)	39 (0.8)
계		65 (100)	119 (100)	846 (100)	1038 (100)	1888 (100)	1118 (100)	543 (100)	5617 (100)

〈표3〉을 보면, 상권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문형은 ‘Aです, A(사전형)’로, 전체 사용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문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Aく(は)ありません, Aかったです, Aくないです, Aかった’ 등의 순이며,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い, Aくなかった’는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문형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Aです, Aく(は)ありません’은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Aかったです, A(사전형)’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 ‘Aくないです, Aかった’는 교육과정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い, Aくなかった’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낮아 큰 변화를 볼 수 없다.

다음은 하권에 쓰인 이형용사 활용형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표이다.

〈표4〉 교육과정별 형용사 활용형(하권)

단위=회, ()=%

분류	표현형식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계
1	Aです	1 (1.9)	16 (23.9)	45 (21.3)	94 (12.9)	211 (30.2)	123 (26.0)	32 (16.8)	522 (21.5)
2	Aくないです	0	0	15 (7.1)	5 (0.7)	4 (0.6)	4 (0.9)	0	28 (1.6)
3	Aく(は)ありません	2 (3.8)	0	1 (0.5)	19 (2.6)	27 (3.9)	9 (1.9)	0	58 (2.4)
4	Aかったです	0	1 (1.5)	2 (0.9)	18 (2.5)	48 (6.9)	34 (7.2)	19 (9.9)	122 (5.0)
5	Aくなかったです	0	0	0	1 (0.1)	1 (0.1)	1 (0.2)	0	3 (0.1)

3) 3) 2차 교과서의 비과거 부정형은 ‘Aくはありません’과 같이 ‘は’를 포함한 형태만을 제시하고 있다.

(1)黒くは ありません.

(日本語讀本(上) p.33)

6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0	0	0	2 (0.3)	0	0	2 (0.1)
7	A(사전형)	37 (71.2)	39 (58.2)	85 (40.3)	527 (72.1)	303 (43.5)	244 (51.6)	128 (67.0)	1363 (56.2)
8	Aくない	0	2 (2.9)	16 (7.6)	21 (2.9)	36 (5.2)	11 (2.3)	2 (1.0)	88 (3.5)
9	Aかった	12 (23.1)	8 (12.0)	45 (21.3)	41 (5.5)	62 (8.9)	46 (9.7)	10 (5.3)	224 (9.1)
10	Aくなかった	0	1 (1.5)	2 (1.0)	5 (0.7)	3 (0.4)	1 (0.2)	0	12 (0.5)
계		52 (100)	67 (100)	211 (100)	731 (100)	697 (100)	473 (100)	191 (100)	2422 (100)

〈표4〉를 보면, ‘Aです, A(사전형)’가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던 상권과 달리 하권에서는, ‘A(사전형)’의 사용 빈도가 56.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Aです’는 21.5%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상권에서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았던 ‘Aく(は)ありません, Aくないです’는 하권에서 1.6%, 2.4%로 사용빈도가 낮으며,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かった’는 상권과 마찬가지로 사용빈도가 매우 저조하다.

전체적인 사용빈도를 보면, 상권에 비해 보통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하권의 문체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즉, 상권은 비교적 가벼운 소재의 정중체 문장이 많은 반면, 하권은 독해문 중심의 보통체 문장이 많기 때문이다.

문형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Aかったです’는 사용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문형은 교육과정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하권에 다양한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면서 문형이 자유롭게 쓰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형용사 활용형은 주로 ‘Aです, A(사전형)’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かった’ 등의 부정형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4.2.2 교과서별 도입 문형 및 시기

다음은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이형용사 문형이 언제 도입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5〉 교과서별 도입 문형 및 도입 시기

교육과정	교과서	1	2	3	4	5	6	7	8	9	10
2차	일본어연구회	상6	x	상6	x	x	x	상18	x	하1	x
3차	한국어일본학회	상5	상14	상5	상30	상30	x	상29	상30	상30	하21
4차	교학사	상5	상9	상5	상11	상11	x	상5	x	하22	상18
	금성출판사	상6	x	상6	상14	x	상14	상6	상14	상14	x
	시사영어사	상7	x	상7	상12	상12	상12	상13	하11	상12	x
	지학사	상4	상4	상4	상8	상8	x	상4	x	상8	x
	한림출판사	상5	상5	상5	상14	x	상14	상5	x	상19	x
5차	금성출판사A	상5	하7	상5	상9	상9	상9	상5	x	상17	x
	금성출판사B	상5	상6	상5	상6	상6	x	상5	하17	하8	하19

	동아출판사	상6	상11	상6	상11	상11	상11	상6	하5	하4	x
	박영사	상7	상13	상7	상13	상13	상13	상7	하6	상13	상13
	보진재	상8	하10	상9	상13	상13	상13	상9	상18	하2	하21
	지학사	상8	상8	상8	상14	상14	상14	상8	상12	하1	x
	진명출판사	상3	x	하7	상15	x	x	상3	상16	상16	x
	천재교육	상5	x	상5	상9	x	x	상5	상10	상9	x
6차	교학사A	상5	상8	상12	상12	상12	x	상4	상19	상12	x
	교학사B	상7	상7	상20	상7	상12	x	상6	상7	상7	상12
	금성출판사A	상3	상6	상6	상10	상11	x	상6	상10	상10	상10
	금성출판사B	상3	상3	상3	상5	x	x	상3	하2	상14	상14
	민중서림	상2	x	상2	상3	x	x	상2	상4	상3	x
	성안당	상2	상4	상2	상4	x	상4	상2	상4	상4	상4
	송산출판사	상4	상4	상4	상8	x	x	상4	상8	상8	x
	시사일본어사	상6	상11	상6	상6	상11	상11	상6	상17	x	하8
	지학사	상7	하2	상7	상11	x	x	상7	하9	상11	x
	진명출판사A	상2	x	상5	상13	x	x	상2	하9	상10	x
진명출판사B	상3	상4	상4	상13	x	x	상3	x	상13	x	
천재교육	상2	x	상4	상9	x	x	상2	x	상8	상9	
7차	교학사A	상3	x	상3	상5	x	x	상3	x	x	상8
	교학사B	상2	상6	상5	상6	상6	x	상2	x	상5	x
	미래엔	상3	상5	상3	상5	x	상5	상3	x	상5	x
	블랙박스	상2	x	상2	상6	x	x	상2	x	상6	하4
	YBM	상4	상4	상4	상6	x	x	상4	x	상6	x
	성안당	상2	x	상3	상12	x	x	상4	상7	상10	x
	지학사	상5	상5	상5	상5	x	x	상4	하2	상5	x
	진명출판사A	상7	하4	상8	하7	하7	x	상7	x	상7	x
	진명출판사B	상5	x	상5	상10	상10	x	상5	x	x	x
천재교육	상3	상4	x	상3	x	x	상3	하3	상9	x	
2007년 개정	교학사	상2	x	상3	상8	x	x	상2	x	상8	x
	다락원	상2	상6	x	상6	x	x	상2	상6	상6	상6
	미래엔	상3	상4	상4	상5	x	x	상3	x	상5	x
	지학사	상3	상3	상3	상6	상6	상6	상2	x	x	x
	천재교과서A	상3	상3	상3	상7	x	x	상3	상3	상7	x
	천재교육B	상3	x	x	상5	x	x	상3	하3	상5	x

(상단의 숫자는 <표3><표4>의 표현형식 분류 번호를 의미함)

<표5>를 보면, 교과서마다 도입하고 있는 문형과 시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Aです, Aくはありません’을 우선 도입하고, 상권 중반에서 ‘A(사전형)’를 도입한 후 하권에서 ‘Aかった’만을 도입하였다. ‘Aです’와 ‘Aくはありません’을 대립적으로 제시하였고, ‘A(사전형)’는 본문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교과서는 い형용사의 활용체계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필요한 문형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2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です, A(は)ありません’을 우선 도입하고, ‘Aくないです’를 도입한 후 상권 후반에서 ‘A(사전형)’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ない, Aかった’ 등을 도입하고 있다. 3차 교과서의 특징은 ‘活用のあることば’라는 과를 설정하여 동사, い형용사, な형용사 활용형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2차 교과서에 비해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도입, 설명하려는 의도를

엮을 수 있다.⁴⁾ 단, 3차 교과서에서도 ‘Aくありませんでした’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Aくなかった’는 하권에 도입되었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마다 문형도입에 차이가 있다. 우선적으로 도입한 활용형을 보면, ‘Aです, Aくありません’을 5종교과서 모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4종교과서에서 ‘A(사전형)’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데, ‘A(사전형)’가 우선 도입된 것은 4차 교과서가 처음이다. 또한, ‘Aくないです’도 ‘Aくありません’과 함께 처음으로 우선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중체 과거긍정형인 ‘Aかったです’를 모든 교과서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교과서별로 도입하지 않는 문형에도 차이가 있어, 교학사에서는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い, Aかった’가, 금성출판사는 ‘Aくないです,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なかった’가, 시사영어사는 ‘Aくないです, Aくない’가, 지학사는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い, Aくなかった’가, 한림출판사에서는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ない, Aくなかった’가 도입되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 교과서 중 모든 교과서에서 우선 도입하고 있는 문형은 ‘Aです’뿐이며 ‘A(사전형)’는 7종에서, ‘Aくありません’은 6종에서 우선 도입하였다. 5차 교과서는 4차에 비해 제시하고 있는 활용형이 증가하여 박영사, 보진재에서는 모든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다. 단, 진명출판사와 천재교육은 ‘Aくないです,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かった’ 등 4가지 활용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5차 교과서에서는 ‘Aくないです’와 ‘Aくありません’을 동일 과에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1종에 불과하지만, 과거형인 ‘Aくなかったです’와 ‘Aくありませんでした’는 5종 교과서 모두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형을 도입하면서 명사, 동사의 과거형과 함께 형용사 과거형을 모두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6차 교육과정 교과서 중 모든 교과서에서 우선 도입하고 있는 문형은 없으며, ‘A(사전형)’가 11종에서 우선 도입되었고, ‘Aです’가 10종에서 우선 도입되었다. 또한 이전 교과서에서는 ‘Aです’의 대립체계로써 ‘Aくありません’과 ‘A(사전형)’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았으나, 6차 교과서부터는 ‘Aです’와 ‘A(사전형)’를 대립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Aくありません’을 우선 도입하는 교과서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くないです’를 ‘Aくありません’보다 먼저 도입하는 교과서도 처음으로 등장한다.

6차 교과서는 5차 교과서에 비해 도입하고 있는 문형이 교과서마다 크게 다른데,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제시되면서, 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설명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Aくありませんでした’와 ‘Aくなかった’의 도입이 매우 저조하며, 이 현상은 7차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형용사의 도입 시기 또한 빨라져 상권 2, 3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7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개인의 느낌’이라는 기능을 이룬 시기에 도입한 결과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주로 명사문과 존재문 뒤에 형용사문을 다루었던 이전 교과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중 모든 교과서에서 우선 제시하고 있는 문형은 ‘Aです’이며, 9종 교과서에서 ‘A(사전형)’를 우선 도입하였다. 7차 교과서 또한 의사소통 예시문을 중심으로 문형을 제시하고 있어, 형

4)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活用のあることば(I)’에서는 동사, ‘活用のあることば(II)’에서는 형용사, ‘活用のあることば(III)’에서는 형용동사의 활용체계에 관한 설명을 본문으로 구성하여, 품사별 활용 형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용사 활용형 전체를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필요한 활용형을 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문형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한 과에 집중적으로 활용형을 제시하는 현상도 감소하고 있다. 6차 교과서부터 도입이 저조했던 ‘Aくなかったです, Aがありませんでした’는 물론 ‘Aくない’와 ‘Aくなかった’도 도입이 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중 모든 교과서에서 ‘Aです’ ‘A(사전형)’를 우선 도입하였다. 이 형용사 부정형은 ‘Aくなかったです, Aがありませんでした’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교과서가 가장 많았으나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도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구성하고 있는 의사소통 기본표현에 따라 문형 도입이 매우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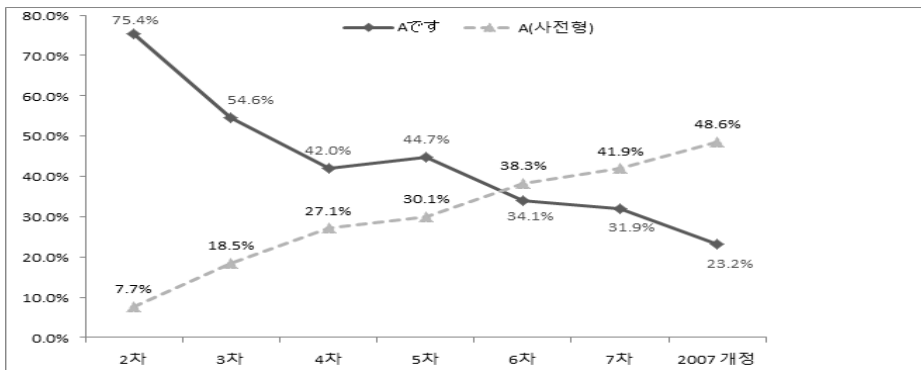
이상, 2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 쓰인 이형용사 활용형 도입 시기 및 도입 문형을 종합해보면, 2차 교과서에서는 한정적으로 문형을 도입하였으며, 3차 교과서에서는 2차보다 형용사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4·5차 교과서에서는 모든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다양한 활용형을 도입하면서 체계성·구조성이 강조되지만, 6차 교과서 이후에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면서 활용형의 도입이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분석 및 고찰⁵⁾

5.1 ‘Aです’와 ‘A(사전형)’의 사용

고등학교 교과서의 이형용사 활용형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Aです’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A(사전형)’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 ‘Aです’와 ‘A(사전형)’의 사용빈도 변화 추이



〈그림1〉을 보면, 70%이상이었던 ‘Aです’의 사용이 20%대로 감소하고, 10%미만이었던 ‘A(사전형)’의 사용이 50%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용빈도 변화의 경계가 되는 것은 6차 교과서로, 의사소통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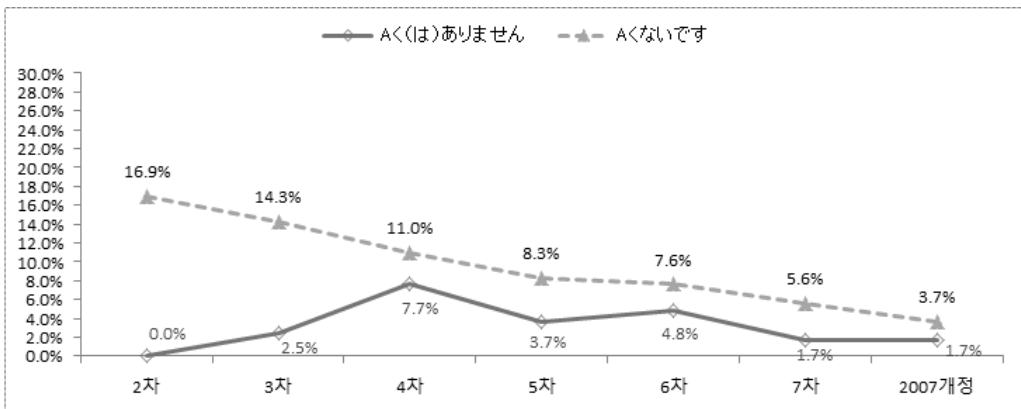
5) 이형용사가 대부분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분석과 고찰은 상권에 쓰인 활용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능이 강조되는 교육과정부터이다. 때문에 'Aです'와 'A(사전형)'의 사용빈도의 역전현상이 문체적 특징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실제 원인을 살펴보면, 6차 교과서가 처음으로 4기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별로 교과서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연습하기 위한 형태를 제시하게 되고, 그 제시형태가 주로 기본형이었기 때문에 활용사의 기본형인 'A(사전형)'의 사용이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사전형)'의 도입이 증가한 것은 활용체계 안에서 기본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의사소통 기능에서 필요한 보통체 긍정표현으로써 'A(사전형)'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통체 긍정표현으로써의 'A(사전형)'의 사용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통체 문장으로 'A(사전형)'를 도입하고 있는 교과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한적 사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용체계를 중시하는 형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Aです'와 'A(사전형)'가 상대방의 지위나 친밀도에 따라 어떻게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고, 이러한 정보가 학습자에게 전달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2 'A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

활용형의 제시에 있어 부정형은 '~ません'과 '~くないです'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어느 형태를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형용사 부정형 중 'A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의 사용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2〉 'A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의 사용빈도 변화 추이



〈그림2〉를 보면, 우선, 'A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의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정중체 비과거 긍정형을 우선 도입하면서 그 대립형태로서 정중체 비과거 부정형을 제시 하던 것이 보통체 비과거 긍정형으로 대립형태가 바뀌었다는 점과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기본표현) 등의 도입으로 부정형에 맞는 의사소통 표현을 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A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의 두 형태를 비교해 보면, 모든 교육과정에서 'Aありません'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표6〉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의 도입 실태

단위 : 종수

Aくありません	○			○	×	×
Aくないです	○			×	○	×
	27			13	2	1
계(총 43)	동시	~ないです→~ません	~ません→~ないです	-	-	-
	13	1	13	13	2	1

〈표6〉은 교과서별로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양 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27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동시에 제시하거나 ‘Aくありません’을 제시하고 다른 과에서 ‘Aくないです’를 제시하는 경우가 각각 13종이었으며, ‘Aくないです’를 먼저 제시하고 후에 ‘Aくありません’을 제시하는 경우는 1종뿐이었다. 두 형태 중 ‘Aくありません’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13종이었으며, ‘Aくないです’만을 제시하거나 모두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2종과 1종이었다.

사와베·아이자와(沢邊·相澤 2005)는 일본의 초급교재 중 50%가 현재 부정형으로 ‘~ないです’를 취급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7차)에서는 ‘~ません’을 규범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서도 모든 교육과정에서 ‘Aくありません’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⁶⁾

두 형태 중에서 어느 형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자의 교육방침 및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어느 형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거나 중요시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는 사용하는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ないです’는 일상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특히 이형용사는 동사나 명사에 비해 ‘~ないです’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때문에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두 형태를 동일시하고 있는 제시방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1)このえんぴつはしらくありません。(ないです) (4차 한림)
 (2)空港は遠くないです。(ありません) (5차 지학사)

상기의 예문과 같은 제시방법은 학습자에서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를 제시할 때에는 각각의 형태가 사용되는 장면을 고려한 설명 및 제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5.3 ‘Aくない’

부정형 중에서 ‘Aくありません’과 ‘Aくないです’를 제외하면,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Aくない’이다. ‘Aくない’는 ‘Aくないです’의 증가와 함께 근래 들어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용형이다. 이 문형의 도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부정평서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과거부정형에도 ‘Aくなかったです’와 ‘Aくありませんでした’가 있는데, 과거 부정형의 경우에는 ‘Aくなかったです’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더 많아서 현재부정형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a. あら、それあたらしい帽子ですね。

b. この帽子、あたらしくないのよ。 (6차 교학사)

(4)a. 今日はおいしかったね。

b. うん、あまりたかくなかったけど……。 (2007년 개정 다락원)

실제 일본인 모어화자가 사용하는 'Aくない'의 사용실태에서도 부정의문문보다 부정평서문으로 사용하는 예가 더 많다.

〈표7〉 일본어모어화자의 'Aくない'의 사용실태⁷⁾

단위=회, ()=%

표현형식	부정평서문	부정의문문	계
Aくない	18(62)	11(38)	29(100)

(5)F128: うわ、ほんとひどいよねー。

M018: ちょ俺、うそと言ひ諷嫌いやからね。

〈笑い〉 ひどくないよ、別に。

F128: ひでーよ、はい。

M018: あ、はいはい。

(6)F128: え、今日は何年生の子?

M018: あー、もう、俺もうね、小学校しかやってない。

F128: あ、そうなんだ。

M018: うん。

F128: ね、小学生教えるのって難しくない? 逆に。

M018: だから一緒にね、(うん)漫画読んだり、(うん)あと俺の教育論を。

F128: うん、それって何か教えとるっていうの。 (名大コーパス)

위의 예문(5)는 부정평서문으로, (6)은 부정의문문으로 사용한 경우로, (5)와 같이 부정평서문으로 사용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7〉의 문의 종류를 친소관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사용실태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8〉 일본어모어화자의 친소관계에 따른 'Aくない'의 사용실태

단위=회, ()=%

표현형식	문의 종류	친(親)	소(疎)	계
Aくない	부정평서문	10(55.5)	8(44.5)	18(100)
	부정의문문	9(82)	2(18)	11(100)

〈표 8〉은 친소관계에 따라 〈표 7〉을 재분류한 것으로, 부정평서문의 경우 친소관계에 따라 큰 차이를 찾

7) 〈표7〉은 '名大コーパス'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각각 350분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아볼 수 없으나, 부정의문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친(親)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 사용되는 부정의문문은 다음의 예문(7)과 같이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7)F029 : A大で就職したらさー、(うん)Bちゃんちとお隣さんとかさー、
(うーん)ありえるわけだよね。おかしくない? なんか。

F004 : うーん、そうだねー、そうだよねー。

F029 : うん、おかしとおかしい。

F004 : うん。

위의 예문(7)은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4)에 쓰인 부정의문문과는 의미적·음성적 차이를 보인다. <표 8>에서 부정의문문으로 쓰인 9가지 예 중에서 7가지 예가 동의요구 의문문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친(親)의 관계에서 의문문으로 사용된 ‘Aくない’는 동의요구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Aくない’의 활용형의 도입에 있어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으로써의 제시도 필요하며, 특히 동의요구형 의문문으로 사용될 시의 특징에 관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마무리

본고에서는 2차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쓰인 이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문형 변천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형용사 활용형의 사용빈도를 보면, 상권의 경우, ‘Aです, A<(は)ありません’은 감소하는 반면, ‘A(사전형), Aかったです’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권의 경우, ‘Aかったです’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권 모두 ‘Aくなかったです, Aくありませんでした, Aくなかった’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2. 교육과정별 도입 문형 및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2차 교과서에서는 한정적인 문형만이 일부 도입되었고, 3차 교과서에서는 2차 교과서보다는 형용사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4·5차 교과서에서는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다양한 활용형이 도입되면서, 체계성 및 구조성이 강조되었으나, 6차 교과서 이후에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면서 활용형의 도입이 축소되고 있다.
3. 6차 교육과정을 경계로 ‘Aです’보다 ‘A(사전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체계로서의 제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보통체 긍정 표현으로써 사용되는 상황 및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정중체 비과거 부정형의 두 형태 중 ‘Aくありません’을 중시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Aくないです’와의 차이점 및 장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Aくない’는 대부분 부정평서문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일본인 모어화자의 경우 친의 관계에서는 동의요구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문문으로 사용 시, 이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나타난 이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문형의 변천 과정을 살펴 보고 이형용사 활용형 교육의 문제점에 관해 논해보았다. 2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일본어 문법 교육의 조류는 크게 구조중심에서 의사소통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언어기능에 따른 상황 및 장면을 중시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과서의 구성은 규범적인 문법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문제의식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의영(2012) 「韓国の日本語教科書に関する研究-高等学校の教科書にみる日本観を中心に-」 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科博士学位論文
- 김이진(2003) 「제7차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문형 분석 -4종 교과서 『일본어1』의 문형을 중심으로-」 『일본어 교육연구』 5, pp.71-85
- 김희연(2011) 「제7차 일본어 교과서(Ⅰ·Ⅱ)의 形容詞 意味·用法 研究 -形容詞 連体形(形容詞+名詞)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200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일본어 교과서 이형용사·나형용사 문형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정(2013)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문형 변천 -형용사를 중심으로-」 『광복이후 중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성립과 변천 과정』 pp.45-52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문
- 윤소영(2004)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문형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유숙(2012) 「국가정책으로서의 일본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덕봉(1994) 「일본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구성」 『일본학보』 33, pp.45-70
- _____ (1996) 「제6차 교육과정에서 본 현행 일본어 교과서의 체제」 『일본학보』 37, pp.49-64
- _____ (1998)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인문과학연구』 pp.73-104
- 조문희(2011) 『일본어교육사(상)(하)』 제이앤씨
- _____ (2002) 「일본어 교육과정사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41, pp.175-191
- _____ (2001) 「일본어 교과서 변천사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49, pp.601-615
- 주은경(2005)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형용사/형용동사 문형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희숙(1990) 「日本語 教材研究 -形容詞,形容動詞の 文型을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제交流基金(2002) 『日本語能力試驗出題基準(改訂版)』 凡人社
- 小林ミナ(2005)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役立つ日本語教育文法」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日本語教育文法』 くろしお出版pp.23-41
- _____ (2009) 「『基本的な文法項目』とは何か」 『日本語教育の過去・現在・未来 文法』 凡人社pp.40-61
- 澤邊裕子·相澤由佳(2005) 「高校日本語教科書における 否定丁寧形「~ません」と「~ないです」」 『일본어교육연구』 9 pp.101-117
- 野田尚史(2005)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日本語教育文法」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日本語教育文法』 くろしお出版pp.1-20
- 吉岡英幸(2012) 「日本語教材の変遷と新しい動向」 『日本語教育研究』 24 pp.7-19
- 森篤嗣·庵功雄(2011) 『日本語教育文法のための多様なアプローチ』 ひつじ書房

〈 要 旨 〉

高等学校日本語教科書の文型の変遷 -い形容詞の活用形を中心に-

本稿では第2次教育課程から2007改定教育課程までの高等学校の日本語教科書に用いられたい形容詞の活用形を中心に文型の変遷につ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活用形の使用頻度では「Aです、A(辞書形)」が最も高く、これらの文型が中心的に使わ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また、「Aくなかったです、Aくありませんでした、Aくなかった」などの否定形はほとんど使われていなかった。教育課程別に導入している文型の様子をみると、第2次教科書では限定的に一部の活用形だけが導入され、第3次教科書では体系的に導入しようとする試みが伺えた。第4次・第5次教科書では全教育課程の中で一番多様な活用形が導入されたが、第6次教科書以降からは意思疎通機能を中心に教科書が構成され、活用形が縮小されていた。以上の内容をもとに、「Aです」と「A(辞書形)」の使用で、「A(辞書形)」が形式的に導入されていること、「Aくありません」と「Aくありません」で「Aくありません」が使用される場面的・状況的情報を提供するべきであること、「Aくない」が同意要求の疑問文でもよく使われることなど、活用形の扱い方の問題点について述べた。第2次教育課程から2007改定教育課程まで日本語の文型教育の潮流は構造中心から意思疎通中心になり、言語機能によって場面性や対人性が強調されている。しかし、まだ、規範的な言語観や体系中心の文法観が根強く存在しており、これらの問題に関する再考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論文分野：日本語教育学

キーワード：高等学校の日本語教科書、教育課程、文型の変遷、い形容詞の活用形

■ 오현정(吳珉定)

건국대학교 교수

hjoh@konkuk.ac.kr

- 投稿日：2013년 9월 30일
- 審査開始：2013년 10월 14일
- 審査完了：2013년 11월 13일
- 掲載確定：2013년 11월 18일